

‘젠안(元庵)’

젠안

젠안은 근대에 재건된 다실로, 과거 우라쿠가 살았던 오사카 집 다실의 옛 도면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그 다실도 '조안(如庵)'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라쿠엔을 구축함에 있어 이 도면을 토대로 지어지는 다실의 정식 명칭이 필요했는데, 호리구치는 최초의 은거지를 의미하는 '젠안'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이 다실의 역사를 풀어가기 위해서 호리구치는 현재 조안과 관련된 유물 중 하나로 남쪽에 걸려있는 편액을 참고했습니다. 이 편액에는 '조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나, 그 날짜가 1599 년이라고 되어 있어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이나 조안이 교토에 세워지기 훨씬 이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리구치는 이 편액은 이전부터 있던 같은 이름의 다실을 위해 만들어졌고, 우라쿠가 오사카를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와 교토에 세운 새 다실에 이 편액과 이름을 다시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라쿠는 1614 년 겨울까지 오사카성 바로 북서쪽에 위치하는 텐마(天満)에 살았지만, 그의 옛 거처는 그 3 년 후에 신설된 가와사키토쇼구(川崎東照宮)에 예속되었습니다. 1837 년에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우라쿠의 다실은 신사의 일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871 년에 이 땅에 조폐국이 신설되었고, 그 부지 일각에 당시 다실의 일부로 입실 전에 손님들이 신발을 벗는 '구쓰누기이시(답탈석)'이 남아있습니다. 젠안을 재건할 때 호리구치는 이 돌을 우라쿠엔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섭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젠안 재건이 완료되면서 편액이 필요해졌습니다. 호리구치는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과거 나라(奈良)의 기코지 절에 걸려 있던 비판(扉板)으로, 오이소의 미쓰이가문 별저에서 재사용되었다는 유서 깊은 목재를 선택했습니다. 우라쿠엔 직원들은 목재를 교토까지 운반하여 오모테센케 제 13 대 종장 무진 소사(無盡宗左, 1901-1979)에게 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편액에 선택한 이름을 새기고, 새로 완성한 다실을 정식으로 '젠안'이라 명명했습니다.

젠안은 조안보다 넓고, 내장도 마찬가지로 과격적인 것들뿐이었는데, 그 중에는 우라쿠의 스승인 센리큐의 취향에서 분명하게 벗어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라쿠는 방의 마감으로 창호지 창문의 나무틀 등에 리큐가 싫어했던 대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나누는 기둥에도 대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리큐는 다회(茶會, 차모임)용으로 선택한 족자나 꽃꽂이를 손님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지만, 우라쿠는 도쿄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를 주인 뒤쪽에 배치했습니다.